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속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2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정 여 진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 명 속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정 여 진


# 인 준 서

정여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현  명  심       

심사위원       김  영  숙       

심사위원       이  인  경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서울시 소재 교육대학원 10개의 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음악교육 대학원생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일반적 사항,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자유 기술로 총 60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수집된 유효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재학생의 경우 3.85, 졸업생의 경우 4.17로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았으며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합친 음악교육 대학원생 전체의 진로결정수준은 3.98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교직 선택 동기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내재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이타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그 다음을 이었다. 재학생의 경우 내재적 동기가 4.12, 이타적 동기 4.01, 외재적 동기 3.63으로 외재적 동기가 가장 낮았다. 졸업생은 내재적 동기 4.30, 이타적 동기 4.22였고, 재학생과 마찬가지로의 순서로 외재적 동기가 가장 낮은 3.40의 결과가 나왔다. 음악교육 대학원생 전체의 수치 또한 앞선 재학생, 졸업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은 교육대학원 진학하는데 있어 내재적 동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공 만족도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높은 평균을 보였다. 재학생의 경우 4.00, 졸업생은 4.02로 재학생과 졸업생 간 전공 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교과내용 만족과 외재적 인식 만족에서의 차이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넷째, 이 세 변인 간 상관관계에 있어 높은 상관관계는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였다. 재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수준과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의 관계가 가장 낮았다. 졸업생의 경우 또한 내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 간 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진로결정수준과 외재적 동기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지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유지와 내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연구의 제한점 .....	4
4. 용어의 정의 .....	5
II. 이론적 고찰 .....	7
1. 진로 .....	7
2. 교직 선택 동기 .....	15
3. 전공 만족도 .....	19
4. 선행연구 고찰 .....	21
III. 연구 방법 .....	27
1. 연구 대상 .....	27
2. 연구 기간 .....	28
3. 연구 도구 .....	29
4. 연구 방법 .....	36
IV. 결과 .....	37
V. 결론 .....	55

##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Ⅱ-1> 교직 선택 동기 유형 .....	18
<표Ⅲ-1> 연구 대상 인원수와 학교명, 재학 및 졸업여부 .....	28
<표Ⅲ-2> 연구 기간 및 연구 내용 .....	29
<표Ⅲ-3> 최종 설문지 구성 내용 및 문항 번호 .....	30
<표Ⅲ-4> 설문지 문항 수정·보완 예시 .....	34
<표Ⅲ-5> 연구도구 신뢰도 .....	35
<표Ⅳ-1>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결과 .....	37
<표Ⅳ-2>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	38
<표Ⅳ-3> 재학생의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F-검증 분석 .....	39
<표Ⅳ-4>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결과 .....	39
<표Ⅳ-5>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	40
<표Ⅳ-6>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 관계 .....	41
<표Ⅳ-7>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결과 .....	41
<표Ⅳ-8>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	42
<표Ⅳ-9> 졸업생의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F-검증 분석 .....	43
<표Ⅳ-10> 졸업생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결과 .....	43
<표Ⅳ-11> 졸업생의 전공 만족도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	44
<표Ⅳ-12>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 관계 .....	45
<표Ⅳ-13> 두 집단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t-검증 분석 .....	46
<표Ⅳ-14> 두 집단의 진로결정수준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	47
<표Ⅳ-15> 두 집단의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F-검증 분석 .....	48

<표IV-16> 두 집단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t-검증 분석 .....	48
<표IV-17> 두 집단의 전공 만족도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	49
<표IV-18>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결과 .....	50
<표IV-19>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	51
<표IV-20>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F-검증 분석 .....	52
<표IV-21>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결과 .....	52
<표IV-22>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전공 만족도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	53
<표IV-23>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 .....	53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의 취업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시도하고 있으며, 각종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등 각종 취업준비를 위한 금전적, 제도적, 활동성 지원에 힘을 쓰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아직까지는 미비하다. 2020년 12월 기준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 취업률의 비율은 63.3%로<sup>1)</sup> 2018년 12월 기준 67.7%, 2019년 12월 기준 67.1%와 비교하면 감소하고 있다.<sup>2)</sup>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라는 전세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10명 중 7명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sup>3)</sup> 이러한 실정에서 예체능 계열의 취업비율은 더욱 낮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여러 산업들이 발전함에 따라 직업의 종류도 수없이 많아졌다. 그에 따라 일의 내용도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졌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해진 직업세계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능력,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

1)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교육통계센터. 대학 졸업자 취업률  
(<http://swiss.kedi.re.kr/> 2021.2월 접속)

2)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1.1월 접속)

3) 잡코리아(2021). '올해 대졸예정자 10명중 7명 아직 미취업' 기사  
([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599&schCtgr=0&Page=3/](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599&schCtgr=0&Page=3/) 2021. 2월 접속)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부모의 요구나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진로를 결정을 내린 결과는 만족보다는 불만을 갖게 되고 아울러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sup>4)</sup> 이렇듯 올바르게 진로를 결정해야 직업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예체능 계열은 타 전공들에 비해 예술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취업을 포함하여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많다. 예체능 계열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비율 중 정규직 취업 5.7%로 경상계열, 이공계열,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sup>5)</sup>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 ‘교사’ 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매년 교육대학원으로의 진학률이 증명해주고 있다. 최근 교직을 이수하기 위하여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지난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고용불안과 함께 구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교육대학원은 초등, 중등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대학원을 말한다.<sup>7)</sup> 교육대학원은 그 설립취지 상 교원들의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원의 자기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지향의 실무적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대학원의 한 종류이다.<sup>8)</sup>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교육대학원 입학자 평균은 17,105명이고 이 중 예체능 계열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2018년 2,040명, 2019년 1,885명, 2020년 1,913명으로 꾸준히 선호하는 추세이다.<sup>9)</sup>

4) 김봉환 외 12인(2013).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73

5) 잡코리아(2021). 앞의 기사.

6) 김병숙 외 8인(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22

7) 표준국어대사전(1999). (<https://www.korean.go.kr/> 2021, 2월 접속)

8) 이채연(2004).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과정 편성 현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19(1) 127-162 p.133

9)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서비스 학과계열별 입학자 수 통계 (<https://kess.kedi.re.kr/> 2021. 2월 접속)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교직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왜 교사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하며 또한 교직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성찰해보아야 한다.<sup>10)</sup>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함께 다양한 직업 중 교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였는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두 변인이 전공 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여 교육대학원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음악대학 전공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의 정도에 따른 진로선택, 진로장벽에 관한 논문은 각 전공별로 연구된 편이나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서 교육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를 함께 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므로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어떠한 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교육대학원들 중 음악교육을 전공한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를 파악하고 전공 만족도와 상관계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교육대학원생들의 진로 선택과 동기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

10) 김은주(2018). **교직과 교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머리말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1. 음악교육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전체 집단의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가?
2. 음악교육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전체 집단의 교직 선택 동기는 무엇인가?
3. 음악교육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전체 집단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시를 소재로 한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교육대학원의 결과라고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대학원생들 중 음악교육을 전공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하였기에 전체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다.

## 4. 용어의 정의

### 가. 진로

진로는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로 ‘인생 전반의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sup>11)</sup>

### 나. 진로결정수준<sup>12)</sup>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s)이란, 자신의 전공 선택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결정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졸업 이후에 일과 관련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척도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의 측정점수로 정의한다. 높은 점수는 진로결정에 있어 확고함을 의미한다.

### 다. 교직 선택 동기

교직 선택 동기란, 개인이 교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말한다. 학자마다 교직 선택 동기를 유형화하는 방식이나 정의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sup>13)</sup>

---

11) 이지연, 윤형한, 김나라(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8

12)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9(1), 311-333. p.316

13) 정은교, 안도희(2019). “교직이수 학생의 교직선택동기가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교직

본 연구에서는 교직 선택 동기의 유형을 내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내재적 동기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개인의 내재적 흥미 수준을 말한다. 이타적 동기란 학생과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기여하고 싶은 욕구가 포함된 동기이다.<sup>14)</sup> 반면 외재적 동기는 일 자체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유발되는 동기를 뜻한다.<sup>15)</sup>

#### 라. 전공 만족도

전공 만족도란, 본인이 선택한 전공 또는 속한 학과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낸다. 단순히 전공학문만의 만족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소속 학과에 대한 사회적 소속감의 개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본 연구에서의 전공 만족도는 전공학문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내용에 대한 만족, 전공학과의 외재적 인식 만족을 포함하는 소속 학과에 대한 만족의 개념이다. <sup>17)</sup>

---

선택만족의 매개효과” . **열린교육연구**. 27(4). 301-326. p.305

14)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직무수행 및 교사만족에 주는 영향 분석” . **초등교육연구**. 239-260. p.242

15)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위의 책. pp.242-2

16) 김계현,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學科)학부(學部)만족(滿足)의 요인(要因)에 관한 연구” . **상담학연구**. 1(1) 7-20. p.8

17) 어윤경(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 만족도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대학 전공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p.1797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에 앞서 진로와 진로발달이론,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와 전공 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 1. 진로

#### 가. 진로의 정의 및 진로발달이론

진로(career)의 어원은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뜻의 ‘carro’에서 유래되었다. 진로의 사전적 의미로는 ‘한 개인의 생애의 전 과정’이다. 진로란 생애, 경력, 직업 등으로 해석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전망 등으로 인식된다. 또한 생애 직업발달과 그 과정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기도 하다.<sup>18)</sup> 진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호이트(Hoyt, K.B.)는 진로를 인간이 일생을 통해 하는 일의 총칭으로 말로 삶의 중핵이며 인간이 목표를 이루는 길이라고 정의하였고, 맥다니엘(McDaniels, C.)은 진로를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수행하게 되는 연속적인 일이나 여가 모두를 포함하는 ‘생활방식’이라고 칭하였으며 한센(Hansen, L.S.)과 키엘리버(Keierleber, P.L.)는 개인이 자신의 가족과 일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는 선택을 할 때 그 개인의 선택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개념으로 보았다.<sup>19)</sup> 위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

18)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공저(2011).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동문사. p.11

19) 박선영, 김지영, 오효정, 오은경 공저(2014). **진로상담과 직업**. 파주: 정민사. p.11

란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일생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일’ 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0)</sup>

진로발달이론은 진로발달을 생애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sup>21)</sup> 진로발달이론은 긴즈버그(Ginzberg, E.)와 수퍼(Super, D. E.)의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다. 두 학자의 이론적 차이는 진로발달과정의 시기에 있다. 성인 초기까지의 과정으로 본 긴즈버그와 달리 수퍼는 진로발달을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진로발달이론들 중 직업선택과 연결이 되는 긴즈버그와 수퍼의 이론을 대표적으로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긴즈버그(Ginzberg, E.)의 진로발달이론

긴즈버그를 포함하여 액슬라드(Alxelrad, S.), 헤르마(Herma, J. L.)는 일반적으로 진로를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본 진로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개인이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으며,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일련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인 현상으로 보았다.<sup>22)</sup>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6년에서 10년에 걸쳐 발생하는 발달적 과정으로, 대략 11살에 시작되어 17살이나 초기 성인기에 끝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sup>23)</sup> 또한 진로발달과정을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이 기간을 환상적 단계, 시험적 선택단계, 그리고 현실적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환상적 단계에서는 진로선택의 문제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욕구를 중시하는 시기이다. 대개 6세부터 11세까지

---

20) 박선영, 김지영, 오효정, 오은경 공저(2014). 위의 책. p.12

21)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공저(2011). 앞의 책. p.252

22) 김봉환 외 12인(2013). 앞의 책. pp.74-75

23)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공저(2011). 위의 책. p.253

가 해당되며 이 시기 인간은 무엇이든 하고 싶고, 하면 된다는 식의 환상 속에서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sup>24)</sup>

잠정기 단계는 대략 11세부터 17세까지 해당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개인은 자신의 흥미가 취미에 따라 진로선택을 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 단계의 후반기로 갈수록 능력과 가치관 등의 요인은 조금 고려하지만 현실상황을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선택에 있어 다분히 비현실적인 성격을 띤다. 잠정적 단계는 크게 흥미단계, 능력단계, 가치단계, 전환단계로 나눌 수 있다. 흥미단계에서는 11세부터 16세 정도의 개인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흥미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능력단계는 13세부터 14세에 해당되는 시기로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알고 자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가치단계인 15세부터 16세 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가치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고려하고 진로를 생각한다.<sup>25)</sup>

마지막으로 현실기 단계에서는 17세 이후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은 개인적 요인과 현실적 요인간의 타협을 통하여 현실적인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요인이 잠정기를 어떻게 거쳐 가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현실기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26)</sup> 이 시기는 탐색단계와 결정화 단계, 구체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탐색단계에서의 개인은 진로선택의 폭을 좁히기 위해 관심 직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결정화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진로 분야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내적 및 외적 요소를 종합하고 마지막 구체화 단계에서는 자신의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sup>27)</sup>

그의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

24)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공저(2011). 앞의 책. p.255

25) 김봉환 외 12인(2013). 앞의 책. p.75

26)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p.33

27) 김봉환 외 12인(2013). 위의 책. p.76

지식, 태도,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것과,<sup>28)</sup> 연속적인 결과과정에서 초기에는 개인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이 직업관을 좌우하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것들과 외적 조건과의 타협에 의해서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29)</sup>

## 2) 수퍼(Super, D. E.)의 진로발달이론<sup>30)</sup>

수퍼는 깬즈버그의 초기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로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깬즈버그의 이론을 보완하여 수퍼는 직업선택을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과정으로 보고 직업선택이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이라고 하였다.

수퍼의 이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아개념이다.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가치, 흥미,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의미한다. 유아기에서부터 형성되어 죽을 때까지 발달하고 보완되는 자아개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개념인 주관적 개념과 타인의 객관적인 피드백에 근거해 형성된 객관적 자기로 구성된다.<sup>31)</sup> 이러한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은 자아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수퍼의 진로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수퍼는 크게 성장기와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를 거쳐 쇠퇴기로 진입한다고 보았다.

성장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출생부터 14세까지로 이 시기의 초기에는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성장기는 세 가지의 하위단계인 환상기와 흥미기 능력기로 구분된다. 욕구가 지배적이며 환상적인 역할수행이 중요하게

28)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공저(2011). 앞의 책. p.255

29)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공저(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82

30)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공저(2000). 위의 책. pp.82-87

31) 박선영, 김지영, 오효정, 오은경 공저(2014). 앞의 책. p.59

여기는 환상기(4-10세), 개인의 취향이 곧 활동의 목표 및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흥미기(11세-12세), 마지막으로 능력을 더욱 중요시하며 직업의 요구조건을 고려하는 능력기(13세-14세)로 구분된다.

탐색기는 15-24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일을 통해 자아검증, 역할시행, 직업적 탐색을 행한다. 탐색기는 더 나아가 잠정기와 전환기, 시행기로 구분된다.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경험을 통해 시행해보게 되는 잠정기(15-17세),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천하려고 함에 따라 현실적 요인을 중요시하게 되는 전환기(18-21세),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아개념과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을 가지게 되는 시행기 단계(22-24세)를 거치게 된다.

확립기는 25-44세까지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단계는 다시 시행기와 안정기로 나뉜다.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몇 차례의 시행착오와 변동은 경험하게 되는 시행기(25-30세)를 거쳐서 안정기(31-44세)에 접어들게 되면 진로유형이 분명해지고 그것을 안정된 위치로 굳히기 위한 노력을 한다.

유지기는 45-65세의 개인이 직업에 정착하여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65세 이후의 개인은 정신적, 신체적인 힘이 약해짐에 따라 직업전선에서 은퇴하여 다른 활동을 찾는 쇠퇴기를 겪게 된다.

수퍼는 직업선택과정은 인간의 발달과정 및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과정으로서 전체 발달과정의 일부이며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로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차, 능력, 노력, 환경 등에 따라 각기 다르고 직업발달에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개념은 유아기에서부터 형성되어 죽을 때까지 발달되지만, 청년 후기 이후에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sup>32)</sup>

수퍼의 직업발달이론은 개인의 직업발달 과정을 자아실현과 생애발달의 과정으로 본 점과 진로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 발달이론 중 가장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진로결정수준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다. 진로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향후 직업 및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진로결정수준은 한 개인이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예를 든다면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의 구체적인 직업분야에 대한 선택 등이 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진로결정수준은 크게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개인이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음을 의미한다.<sup>35)</sup>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미결정 상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진로결정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여러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

32)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공저(2011). 앞의 책. p.262

33) 구영애, 박수진, 안성식(2020). “대학생의 전공 선택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2) 45-70 p.50

34) 김봉환, 김계현(1997). 앞의 책. p.316

35) 김가미, 소용준, 박준성(2018).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63-83. p.67

36) 김보람, 김봉환(2015).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6. 1-22. p.5

영향을 받는다. 개인이 선택해야 할 진로선택에서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확실하지 못한 상태인 진로미결정은 크게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단계의 사람들과 성격적으로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sup>37)</sup>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는 정보의 부족 정도, 진로선택에 대한 충분한 경험 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부족과 진로선택의 경험을 채울수록 진로미결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sup>38)</sup> 반면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단성이 부족한 것은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결정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성격적인 특성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심리적인 능력의 결여를 의미한다. 진로미결정은 진로의 선택 시점 이전에 누구나 발달적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며 광범위한 현상이므로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인식, 탐색, 그리고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 시켜야 한다.<sup>39)</sup>

진로결정은 진로의식이 한 인간의 생애발달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의식 발달이론이며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전공을 선택했을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sup>40)</sup>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고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후에 직업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

37) 김봉환, 김계현(1997). 앞의 책. p.313

38) 김가미, 소용준, 박준성(2018). 앞의 책. p.67

39) 김가미, 소용준, 박준성(2018). 위의 책. p.68

40) 어윤경(2011). 앞의 책. p.1797

#### 다. 진로결정수준이론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간의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선택은 진로발달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진로발달 연구들은 삶의 각 단계 또는 각 시기에 개인이 직면하는 발달과업과 의사결정자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의 진로에서 다양한 선택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된 의사결정과정에 관심을 갖는다.<sup>41)</sup> 진로결정이론의 초기연구 경우 진로결정을 한 사람과 결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이 연속선상의 단일차원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sup>42)</sup>

진로결정수준이론은 크게 세 부분의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다. 먼저 진로의식이 한 인간의 생애발달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로의식 발달이론’ 과 진로인식, 탐색,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시켜 주어야 한다는 ‘진로학습이론’ , 마지막으로 개인의 진로결정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는 ‘진로선택 및 결정이론’ 이다.

진로결정이론은 진로선택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으로서,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에 관한 정보를 탐색할 줄 알고, 희망진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

41)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2

42)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p.20

본 연구의 경우, 진로발달이론에서의 진로선택 및 결정이론을 배경으로 설문지와 중첩시켜 연구의 배경을 짚었다.

## 2. 교직 선택 동기

### 가. 교직 선택 동기의 정의

교육의 정의는 인류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고 사회화시키며, 자아 실현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는 계획적, 의도적, 계속적인 활동이다.<sup>43)</sup> 또한 교직은 다른 일반적인 직업과는 다르게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직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성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업이자 인간의 전인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교직을 선택한 학생들은 다른 전공들에 비해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직업’, ‘학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직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여타 다른 직업과는 다른 특별한 동기에 의해 선호가 유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44)</sup> 교직을 희망하거나 선택함에 있어 그 동기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이 교직을 희망하거나 선택하게 된 계기는 ‘가르치는 일에 대한 흥미’, ‘안정적인 수업’, ‘학생들과의 생활 및 교감’ 등 매우 다양하다.<sup>45)</sup> 교직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동기별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교직 선택 동기이다.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진학동기가 곧 교

43) 김은주(2018). 앞의 책. p.1

44) 김이경, 한신일(2006). “중등 예비교사들의 교직 희망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수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3(2). 51-73. p.56. 재인용

45) 정은교, 안도희(2019). 앞의 책. p.304

직 선택 동기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대학원을 진학해서도 과정 중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sup>46)</sup> 또한 교직 선택 동기는 직무 수행, 헌신, 만족도, 효능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무엇이 교직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고 있는지, 어떠한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직을 선택하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sup>47)</sup> 대체로 능동적·내재적 동기가 다른 동기에 비해 직무 수행 의욕, 직무 수행, 교직 및 학교 만족도, 수업 및 학생지도 효능감, 수업·학생·조직헌신 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8)</sup>

#### 나. 교직 선택 동기 유형

교직 선택 동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연구를 통해서 추출한 주요 동기들은 학자들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49)</sup> 대표적으로 휴버만(Hubermann)은 교직 선택 동기를 ‘능동적’, ‘물질적’, ‘수동적’ 동기로 유형화 하였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내재적’, ‘외재적’, ‘이타적’ 동기로 구분하였다.<sup>50)</sup>

휴버만의 경우 교직 선택 동기를 능동적, 수동적, 물질적 동기로 구분하였는데 능동적 동기란 가르치는 일, 아동과의 상호 작용, 이타주의적 관점 등을 포함하고, 수동적 동기는 타인의 권유 등 다소 소극적인 잠정적 동기로 보았으며 물질적 동기는 급여, 근무 조건, 안정성 등을 포함한다.<sup>51)</sup>

또 다른 교직 선택 동기의 분류로는 내재적, 외재적, 이타적, 수동적 동기이다.

---

46) 김은주(2018). 앞의 책. p.28

47)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앞의 책. p.241

48) D.C. Lortie(1993). **미국과 한국의 교직사회**. 파주: 양서원. p.119

49) 김이경, 한신일(2006). 앞의 책. p.55

50) 정은교, 안도희(2019). 앞의 책. p.304

51) 김이경, 한신일(2006). 위의 책. p.56

내재적 동기란 개인의 흥미, 적성, 호기심과 같은 요인들에서 동기화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전공 지식과 전문성을 교수활동에 활용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동기를 의미한다.<sup>52)</sup> 내재적 동기는 직업에 내재적인 특성을 생각한 동기로 학교라는 곳을 직장으로 선호하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전공 지식이나 전문성 활용을 가르치는 행위를 즐기는 데서 기인하는 동기이다.<sup>53)</sup> 내재적 동기가 강할 경우 앞으로 교직 생활의 의미가 확고하고 크고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담당업무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내재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경우 외재적 동기에 의해 선택한 경우보다 교직 직무수행 정도가 높으며 교직 만족도를 비롯하여 학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sup>54)</sup> 결국 교사의 내재적 동기는 교사 개인뿐 아니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sup>55)</sup>

이타적 동기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자 하는 욕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기여하고 싶은 욕구 등이 포함된다. 반면 수동적 동기는 개인의 자발적 의지보다 타인의 권유나 주변의 상황적 여건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sup>56)</sup>

외재적 동기는 일 자체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유발되는 동기로, 일 자체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지위, 급여와 같은 경제적인 조건, 방학과 휴직 등을 고려한 근무조건과 직업의 안정성 등이 포함된다. 외재적 동기 역시 한 인간으로서 생존해야 하는 교사에게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외재적 동기가 높은 경우 학급경영, 교육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일 자

52)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앞의 책. p.242

53) 김이경, 한신일(2006). 앞의 책. p.56

54)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위의 책. p.256

55) 김은주(2018). 앞의 책. p. 28

56)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위의 책. p.242

체의 가치보다는 외부적 특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동기로 사회적인 지위와 급여와 같은 경제적인 요건, 방학과 휴직 등 근무 조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sup>57)</sup>

본 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교직 선택 동기 유형인 내재적, 이타적, 외재적 동기를 선택하였다. 수동적 동기의 경우 외재적 동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외재적 동기의 하위항목으로 연결하였다. 다음의 <표Ⅱ-1>은 교직 선택 동기 유형을 대표적인 학자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표Ⅱ-1>교직 선택 동기 유형 58)

연구자 동기 유형	Hubermann (1993)	Chune et al (1999)	Kyriacou & Kobori(1998)	대교협(1983)	신정철 외 (2007)	조남근,양윤 종(1998)
내재적	능동적	내재적	내재적	교 직 적 성, 자아실현	내재적	능동적
외재적	물질적	외재적	외재적	사회적존경, 직업적안정	외재적	물질적
이타적		이타적	이타적		이타적	
수동적	수동적			우발적		수동적

57)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앞의 책. pp.242-244

58)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위의 책. p.242 재인용

### 3. 전공 만족도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정도이다.<sup>59)</sup> 자신이 소속된 전공학과가 자신의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전공 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 반면 자기 적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보 없이 외적인 요인에 의존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 만족도가 낮다. 즉 전공 만족도란 자신의 전공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을 포함하여 여러 요인들의 만족감 정도이며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 성적 불량, 부적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수준과도 연관이 있다.<sup>60)</sup> 어윤경(2011)의 연구에 따르면<sup>61)</sup>, 적성과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타인의 권유나 입학성적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한다.

전공 만족도는 자신의 기대와 직업 준거 집단 간의 비교 등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소속한 학과에 대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운 정도와 자신을 포함하여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자각하는 정도를 포함하여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전공만족의 평가 항목이다. 이러한 개인의 기대를 포함하여 진로나 직업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공만족에 대한 평가는<sup>62)</sup>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다양하다. 학교에 대한 만족 요인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전공만족은 전공교과에 대한 만족, 전공학과에서 배

59) 김계현, 하혜숙(2000). 앞의 책. p.8

60) 김계현, 하혜숙(2000). 위의 책. p.8

61) 어윤경(2011). 앞의 책. pp.1796-1798

62) 김계현, 하혜숙(2000). 위의 책. pp.9-10

우는 학문에 대한 일반적 만족,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 모두를 포함하는 학과만족도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sup>63)</sup>

전공 만족도의 구성은 일반만족,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학교만족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일반만족은 소속 학과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이고 교과만족은 전공 교과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공 교과에 대한 만족은 전공 교과목의 편성과 교과 내용, 교과목 간의 연계성에 대한 만족에 대한 정도를 포함한다. 또한 수업만족은 수업분 위기와 내용, 수업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며 관계만족에 대한 요인은 소속 학과의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와 다른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소속 학과에 대한 사회적, 외재적 인식 만족 정도인 인식만족과 자신이 소속한 학교에 대한 만족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전공 만족도의 하위항목은 교과내용 만족과 전공에 대한 외재적 인식 만족으로 설정하였다.

---

63) 김점남(2014).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 관광계열 및 비관광계열 전공간의 비교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6(6). 40-58. pp.42-43

####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결정수준과 전공 만족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진로결정수준과 전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관계와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로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미정<sup>64)</sup>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의 내·외적가치와 진로결정수준, 전공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직접적, 간접적 효과에 대한 주제로 서울과 인천 대학생 6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 결과, 직업의 내재적 가치는 예체능 계열 전공 대학생들이 가장 높고, 직업의 외재적 가치는 의학계열 대학생이 가장 높고 자연계열 전공 대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만족의 경우에는 공학계열 대학생이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 대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의 내적, 외적가치와 진로결정수준과 전공만족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직업 내적가치는 진로확신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전공만족과는 모든 요인들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전공만족에 있어 진로확신수준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직업외적가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은 낮아지고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직업의 내적가치는 전공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

64) 정미정(2018). 직업의 내·외적가치와 대학생의 전공만족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만 직업의 외적가치는 진로결정수준을 통해 전공만족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주경<sup>65)</sup>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전공 만족도와 직장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충청북도지역에 있는 4년제 K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설문 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수준은 학년별, 전공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를 잘 결정하지 못한다는 성별의 차이는 있었다. 또한 진로미결정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진로결정정도가 높은 학생들에 비하여 전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직장선택 기준에서도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개인의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공 만족도가 낮았으며, 직장 선택 기준에 있어서도 외적 기준에 의지하고 있어 직장 만족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영애, 박수진, 안성식<sup>66)</sup>은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연구결과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전공 선택 동기 중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 자기평가 순으로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

---

65) 김주경(2012).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전공 만족도와 직장선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66) 구영애, 박수진, 안성식(2020). “대학생의 전공 선택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 45-70.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세부요인 중에서는 자기평가, 문제해결, 진로계획, 정보수집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민<sup>67)</sup>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4년제 일반 대학교 재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는데 적합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 관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소명 역시 매개로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교직 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

교직 선택 동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교직 선택 동기가 교사가 된 후 교직 헌신도와 교사 효능감, 그리고 교사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와 예비교사들의 교육대학원 진학동기와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각각의 연구목적에 맞게 교직 선택 동기를 분석하였다.

최주연<sup>68)</sup>은 초등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직 헌신도는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직에 대한 헌신도를 개인 변인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관관계를 연구

---

67) 이혜민(2017).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68) 최주연(2006). 초등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직 헌신도의 관계. 춘천교대 교육대학원.

하였고 연구를 위해 경기, 인천 지역 소재 초등학교 교사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교사가 교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 중 가장 크게 고려한 동기는 능동적 동기와 물질적 동기가 높은 편이었으며 수동적 동기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직헌신도의 경우 전문의식과 교육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열정 요인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등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직 헌신도의 관계는 능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할 경우 전문의식과 교육애를 가지고 교직 생활을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예진<sup>69)</sup>은 예비음악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였다. 서울시와 충청도 소재의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음악교사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예비음악교사들이 교직을 선택할 때 내재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흥미와 적성에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예비음악교사들이 외재적 조건, 즉 안정적인 보수 및 방학의 요인보다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더 고려해 교직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즉 예비교사들이 교직의 본질적인 특성에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교직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효능감에 있어서 음악교과지도 효능감 영역과 생활지도 효능감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교직 선택 시기에 따른 교사 효능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교 이 전에 교직을 선택한 집단이 가장 높은 효능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직을 선택하는 시기가 이룰수록 전반적으로 교사 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예슬<sup>70)</sup>은 예비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 선택 동기와 교직신념에 대해 알아보고 교직 선택 동기와 교직신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

69) 이예진(2019). 예비음악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70) 하예슬(2019).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사신념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해 서울에 소재한 사범대, 교육대학원, 일반대학교의 교직이수의 예비음악교사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 순으로 높았다. 또한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사신념은 교수-학습관, 학습자관, 교과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의 교사신념을 보였다. 이는 교직선택 동기의 내재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가 높을수록 교수-학습자관, 교과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하영<sup>71)</sup>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대학원 진학동기와 졸업 후 희망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 교육대학원 경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울 소재의 교육대학원 재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진학의 가장 큰 동기는 적성과 흥미였으며, 타인의 영향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생각으로 진학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주변의 권유와 직업의 안정성과 같은 외적인 동기로 교육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위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육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외재적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졸업 후 희망진로는 가장 많은 응답으로 ‘음악교사’가 나타났다. 교육대학원 진학 상당수가 진학 이 후 음악교사를 희망하게 되었다는 응답을 통해 교육대학원에서의 경험이 음악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전공 만족도가 낮았고, 직장 선택 기준에 있어서도 직업만족도 또한 낮았다. 이를 통해 진로결정수준이 전공 만족도에 있어서 영

---

71) 김하영(2018).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진학동기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원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을 비롯하여 진로태도의 성숙 정도가 높고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과 전공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만 대체로 대학생, 전문대생 등 학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주제들로 제한되어있고, 교육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교직 선택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교직 선택 동기에 따라 교직 헌신도와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내재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할수록 직업 만족도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외재적 요소를 고려한 집단 대비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직 선택 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현직 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를 교사 헌신도 또는 교사효능감과 교직신념과 연관지은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현직 교사들로만 대상으로 제한된 연구였다.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직 선택 동기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였고, 교육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을 선택한 교육대학원생들 중 음악교육을 전공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를 파악하고, 두 요소가 전공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 선택과 동기 유지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방법을 제시한다. 연구는 서울소재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 두 변인이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를 소재로 한 교육대학원 10개의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재학생 61명, 졸업생 44명 총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표Ⅲ-1>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명과 재학생, 졸업생을 포함한 총 인원수를 분류해놓은 것이다.

<표Ⅲ-1> 연구 대상 인원수와 학교명과 재학 및 졸업여부

학교	재학생	졸업생	인원수
건국대 교육대학원	2	8	10
경희대 교육대학원	10	2	12
국민대 교육대학원	4	0	4
상명대 교육대학원	5	0	5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18	15	33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2	5	7
연세대 교육대학원	6	5	11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7	7	14
중앙대 교육대학원	2	2	4
한양대 교육대학원	5	0	5
전체	61	44	105

## 2.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절차는 준비, 설계 및 개발, 조사실행, 결과 분석, 결과 도출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연구 기간 및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Ⅲ-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III-2> 연구 기간 및 연구 내용

절차	내용	기간
준비	-연구 주제 선정 -문헌자료조사 -연구대상, 연구방법 고찰	2020. 11~ 2021. 12
설계 및 개발	-연구도구 설계 -이론적 배경 고찰	2021. 12~ 2021. 1
조사 실행	-설문지 제작 -연구 대상 섭외 -설문지 배포	2021. 1~ 2021. 3
결과 분석	-분석도구에 의한 자료 분석	2021. 3~ 2021. 4
결론 도출	-분석도구에 의한 자료에 대한 결과 도출 -자료 결과 정리	2021. 4~ 2021. 5

###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21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총 3개월간 제작되었다.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사항 3문항, 교직 선택 동기 18문항, 전공 만족도 21문항, 자유기술 3문항 네 부분으로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설문지는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제작하였고, 현재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6명을 상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5개의 Likart 척도로 나타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화하였다. 제작한 설문지의 최종 문항의 구성 내용 및 문항번호는 다음 <표Ⅲ-3>과 같다. 최종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Ⅲ-3>최종 설문지 구성 내용 및 문항 번호

구성 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일반적 사항	성별	3	1, 2, 3
	학부 전공		
	재학 및 졸업여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성	18	1, 2
	*진로미결정성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교직 선택 동기	내재적 동기	20	1, 3, 4, 6, 14
	이타적 동기		2, 5, 7, 9
	외재적 동기		8,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자유 선택	1	21
전공 만족도	교과내용 만족	15	1, 2, 3, 4, 5, 6, 7, 10
	전공에 대한 외재적 인식 만족		8, 9, 11, 12, 13, 14, 15
자유기술		3	1, 2, 3
합계		60	-

\*표는 역문항.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문항은 총 3개의 문항으로 설문지 대상자들의 성별, 학부 전공, 재학 학기 및 졸업여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 그리고 전공 만족도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부 전공에 대한 문항은 자유기술로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가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서양음악과 국악, 기타 전공으로 세분화하였다.

## 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는 설문지 항목은 황현정<sup>72)</sup>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이론을 바탕으로 문장을 수정, 보완하였다. 2번 문항의 경우 1번 문항과의 내용중복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 알고 있다.’ 라는 문장을 추가하여 1번문항의 내용과 차별성을 두었다. 7번 문항은 진로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정보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원본의 문항인 ‘지금까지 나는 진로 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지금 당장 진로 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의 경우 문항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진로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정보라는 내용을 문항 앞 쪽으로 옮겨 설문대상자가 문항을 이해하기 용이하게 수정하였다.

문항은 진로결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1~2문항과 진로미결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3~18로 구성하였다. 진로결정성을 나타내는 문항 1~2는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정도의 진로결정수준을 의미하지만, 진로미결정성을 나타내

---

72) 황현정(2015).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는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정도의 진로결정수준을 의미한다.

### 3) 교직 선택 동기

교직 선택 동기에 해당하는 설문지 항목은 하예슬<sup>73)</sup>, 장유수<sup>74)</sup> 그리고 최주연<sup>75)</sup>의 설문지를 취합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의 기준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대로 외재적, 내재적, 이타적 동기로 분류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에 맞게 모든 문항의 ‘교직’이라는 단어 대신 ‘음악교사’로 수정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문항의 순서 또한 설문을 응하는 대상자가 설문지의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해서 응할 수 있도록 외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교원복지’와 ‘안정적인 수입’에 관한 문항은 원본의 설문지의 앞쪽 구성과는 다르게 뒤쪽 문항번호로 재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마다 교직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분류하기 위하여 전체 교직 선택 동기에 해당하는 20문항 중 연구대상자가 교직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에 해당되는 문항을 선택해서 작성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

73) 하예슬(2019).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사신념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74) 장유수(2010). 초등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와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75) 최주연(2006). 초등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직 헌신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4) 전공 만족도

전공 만족도의 문항은 이혜민<sup>76)</sup>의 전공 만족도 문항 18문항 중 15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최종설문지에는 교과만족 내용 8문항, 전공에 대한 외재적 인식 만족 7문항을 채택하여 구성하였다.

원본 설문지에 설문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문항인 ‘전공학과 교수님들은 전공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와 ‘전공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의 경우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과는 무관하여 삭제하였다. 또한 ‘현재 전공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과이다.’라는 문항은 앞선 ‘나는 전공학과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만족도문항과 내용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전공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의 모든 항목의 ‘전공학과’라는 용어는 설문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악교육학과’라는 단어로 수정하였다.

---

76) 이혜민(2017).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각 영역 별 설문지 문항의 수정·보완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 <표Ⅲ-4>를 통해 정리하였다.

<표Ⅲ-4> 설문지 문항 수정·보완 예시

문항 번호	기존 문항	변경된 문항	수정 내용
7	지금까지 나는 진로 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지금 당장 진로 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지금 당장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경험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진로 선택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다.	-중복어휘 삭제 -어순 정리
9	교직을 통해 사회에 헌신하고 싶어서	음악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회에 헌신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다.	-연구대상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 -문장화
10	나는 전공학과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음악교육학과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연구대상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

나. 설문지 문항 신뢰도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문항의 신뢰도 검사(Cronbach' s  $\alpha$ )결과는 아래의 <표Ⅲ-5>와 같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 중 진로결정성은 0.85, 진로미결정성은 0.91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교직 선택 동기의 하위영역 내재적 동기는 0.76, 이타적 동기는 0.81, 외재적 동기는 0.80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만족도의 교과내용 만족은 0.90, 전공에 대한 외재적 인식 만족은 0.86의 신뢰도의 결과를 보였다. 신뢰도 측정 결과,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표Ⅲ-5>연구도구 신뢰도

구성 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신뢰도
일반적 사항	성별	3	1, 2, 3	
	학부 전공			
	재학 학기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성	18	1, 2	0.85
	*진로미결정성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0.91
교직 선택 동기	내재적 동기	20	1, 3, 4, 6, 14	0.76
	이타적 동기		2, 5, 7, 9	0.81
	외재적 동기		8,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0.80
	자유 선택	1	21	
전공 만족도	교과내용 만족	15	1, 2, 3, 4, 5, 6, 7, 10	0.90
	전공에 대한 외재적 인식 만족		8, 9, 11, 12, 13, 14, 15	0.86
자유기술		3	1, 2, 3	
합계		60	-	

\*표는 역문항

#### 4.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회수된 유효한 설문지 105부는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교한 후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합친 전체집단 순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인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분석

#### 가.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분석 결과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IV-1>과 같다. 재학생 진로결정수준 평균은 3.85이다.

<표IV-1>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결과

	구분	사례수(명)	평균
진로결정수준	재학생	61	3.85

\*p <0.05

<표IV-2>는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t-검증 분석 결과이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진로결정성에 대한 재학생의 평균은 3.66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영역인 진로미결정성에 있어서 평균 3.87의 결과가 나왔다. 진로미결정성은 역채점을 하여 미결정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 유의 확률은 0,193으로 P-value가 0.05보다 크므로 진로결정성과 진로미결정성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표IV-2>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성	61	3.66	1.03	120	-1.31	0.193
	진로미결정성	61	3.87	0.64			

\* p <0.05

#### 나. 재학생의 교직 선택 동기 분석 결과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준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교직 선택 동기를 내재적, 이타적, 외재적 동기별로 분석하였다. 다음 <표IV-3>은 재학생의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F-검증 분석 결과이다. 내재적 동기에 의해 교육대학원 진학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평균은 4.12, 이타적 동기 4.01, 외재적 동기 3.63으로 나타났다.

교직 선택 동기의 하위영역 유의확률은 0.0005로 P-value가 0.05보다 작으므로 내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 외재적 동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IV-3> 재학생의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F-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F값	유의확률
교직 선택 동기	내재적 동기	61	4.12	0.47	7.93	0.000
	이타적 동기	61	4.01	0.64		
	외재적 동기	61	3.63	0.46		

\*p <0.05

다.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 분석 결과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IV-4>와 같다. 재학생 평균 전공 만족도는 4.00으로 나타났다.

<표IV-4>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결과

	구분	사례수(명)	평균
전공 만족도	재학생	61	4.00

\*p <0.05

다음 <표IV-5>는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결과이다. 전공 만족도는 교과내용 만족과 외재적 인식 만족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재학생들의 교과내용에 있어 만족 정도는 3.98, 외재적 인식에서 오는 만족 정도는 4.02로 나타났다.

두 영역 간 유의확률의 경우 0.727로  $p < 0.05$ 보다 크므로 재학생들이 느끼는 전공 만족에 있어 두 영역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5>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전공 만족도	교과내용 만족	61	3.98	0.46	120	-0.35	0.727
	외재적 인식 만족	61	4.02	0.48			

\* $p < 0.05$

라.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IV-6>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0.76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였고, 다음으로 내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가 0.62, 이타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가 0.59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0.01인 외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 다음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외재적 동기가 0.01, 이타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0.09로 나타났다.

<표IV-6>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

	진로결정수준	내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	외재적 동기	전공 만족도
진로결정수준	1.00				
내재적 동기	0.42	1.00			
이타적 동기	0.25	0.53	1.00		
외재적 동기	0.01	0.24	0.09	1.00	
전공 만족도	0.76	0.62	0.59	-0.01	1.00

## 2.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분석 결과

### 가.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 분석 결과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다음 <표IV-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4.17이다.

<표IV-7>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결과

	구분	사례수(명)	평균
진로결정수준	졸업생	44	4.17

\*p <0.05

다음 <표IV-8>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t-검증 분석 결과이다. 졸업생들의 진로결정성 평균은 4.05, 진로미결정성에서 4.18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성은 역채점을 하여 미결정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 유의확률은 0.371로 P-value가 0.05보다 크다. 그러므로 졸업생들이 느끼는 진로결정수준의 두 영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표IV-8>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성	44	4.05	0.61	86	-0.90	0.371
	진로미결정성	44	4.18	0.40			

\* p < 0.05

#### 나. 졸업생의 교직 선택 동기 분석 결과

졸업생들의 교직 선택 동기를 분석하고자 내재적, 이타적, 외재적 동기로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F-검증을 통해 나온 값은 <표IV-9>와 같다. 졸업생들의 교직 선택 동기 중 내재적 동기 평균은 4.30, 이타적 동기 4.22, 마지막으로 외재적 동기의 평균은 3.40으로 내재적 동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교직 선택 동기의 하위영역 유의확률은 0.000으로 P-value가 0.05보다 작으므로 각 영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재학생의 교직 선택 동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졸업생의 교직 선택 동기 역시 외재적 동기보

다 내재적, 이타적 동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IV-9> 졸업생의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F-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F값	유의확률
교직 선택 동기	내재적 동기	44	4.30	0.27	23.81	0.000
	이타적 동기	44	4.22	0.36		
	외재적 동기	44	3.40	0.74		

\*p < 0.05

다. 졸업생의 전공 만족도 분석 결과

졸업생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IV-10>와 같다. 졸업생의 전공 만족도 평균은 4.02로 나타났다.

<표IV-10> 졸업생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전공 만족도	졸업생	44	4.02

\*p < 0.05

다음 <표IV-11>는 전공 만족도의 두 하위영역에 대한 t-검증 분석 결과이다. 교과내용 만족에 대한 평균은 3.92, 외재적 인식 만족의 평균은 4.12로 나타났다.

두 영역 간 유의확률의 경우 0.7279로 p < 0.05보다 크므로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이 느끼는 전공 만족도 역시 두 영역 간 유의미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 졸업생의 전공 만족도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전공 만족도	교과내용 만족	44	3.92	0.36	86	-1.62	0.108
	외재적 인식 만족	44	4.12	0.32			

\* p < 0.05

라.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IV-12>와 같다. 졸업생의 경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0.89로 내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이다. 다음으로 이타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가 0.72, 내재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와의 관계가 0.72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0.24로 진로결정수준과 외재적 동기와의 관계다. 다음으로 이타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0.20, 외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 0.28 순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IV-12>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

	진로결정수준	내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	외재적 동기	전공 만족도
진로결정수준	1.00				
내재적 동기	0.45	1.00			
이타적 동기	0.59	0.72	1.00		
외재적 동기	-0.24	0.31	-0.20	1.00	
전공 만족도	0.65	0.89	0.72	0.28	1.00

### 3. 재학생과 졸업생 두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 가. 재학생과 졸업생 간 진로결정수준 비교 결과

두 집단<sup>77)</sup>의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IV-13>와 같다. 실험집단인 재학생의 경우 만점 5점 중 평균 3.85점의 진로결정수준을 나타냈으며 비교집단인 졸업생의 경우 리커트 척도 5점 만점 중 4.17로 재학생보다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이 높게 측정되었다.

진로결정수준의 유의확률은 0.0283으로  $p < 0.05$  로 유의하므로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77) 이하 두 집단은 재학생(실험집단)과 졸업생(비교집단)을 뜻한다.

<표IV-13> 두 집단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진로결정수준	재학생	61	3.85	0.62	103	-2.22	0.028
	졸업생	44	4.17	0.39			

\* p < 0.05

다음의 <표IV-14>는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하위영역에 대한 t-검증 결과이다. 진로결정수준 하위영역은 진로결정성과 진로미결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리커트 척도에 따라 5점 만점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실험집단인 재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성에서 평균 3.66, 진로미결정성에서 3.87로 나타냈고 비교집단인 졸업생의 경우 진로결정성 부분에서 평균 4.05, 진로미결정성에서 4.18을 보였다. 진로미결정성은 역채점을 하여 미결정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 유의확률은 진로결정성에서는 0.035, 진로미결정성에서는 0.035이다. 두 영역 모두 P-value가 0.05보다 작으므로 졸업생의 진로미결정성이 미비하게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이 재학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IV-14> 두 집단의 진로결정수준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진로결정수준 하위영역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진로결정성	재학생	61	3.66	1.03	103	-2.13	0.035
	졸업생	44	4.05	0.61			
진로미결정성	재학생	61	3.87	0.64	103	-2.14	0.035
	졸업생	44	4.18	0.40			

\*p <0.05

#### 나. 재학생과 졸업생 간 교직 선택 동기 비교 결과

두 집단의 교직 선택 동기 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교직 선택 동기의 하위영역은 내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 외재적 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 선택 동기 별 재학생과 졸업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IV-15>와 같다.

내재적 동기의 경우 재학생은 만점 5점을 기준으로 평균 4.12를 보였고 졸업생의 경우 4.30의 결과가 나왔고 이타적 동기의 경우 재학생 평균 4.01, 졸업생 평균 4.22로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에서 재학생의 평균은 3.63, 졸업생은 3.4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직 선택 동기의 하위영역 유의확률은 내재적 동기의 경우 0.169, 이타적 동기 0.131, 외재적 동기 0.133으로  $p < 0.05$ 보다 크므로 교직 선택 동기 별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IV-15> 두 집단의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F-검증 분석

교직 선택 동기 하위영역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내재적 동기	재학생	61	4.12	0.47	103	-1.38	0.169
	졸업생	44	4.30	0.27			
이타적 동기	재학생	61	4.01	0.64	103	-1.52	0.131
	졸업생	44	4.22	0.36			
외재적 동기	재학생	61	3.63	0.46	103	-1.51	0.133
	졸업생	44	3.40	0.74			

\*p <0.05

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전공 만족도 비교 결과

두 집단의 전공 만족도는 다음 <표IV-16>과 같다. 전공 만족도 만점 5점 기준 재학생의 평균은 4.00, 졸업생 평균 4.02로 대체로 높은 평균 수준을 보였다.

전공 만족도의 유의확률은 0.856으로 P-value가 0.05보다 크므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느끼는 전공 만족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IV-16> 두 집단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전공 만족도	재학생	61	4.00	0.40	103	-0.18	0.856
	졸업생	44	4.02	0.33			

\*p <0.05

다음의 <표IV-17>은 전공 만족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t-검증 분석 결과이다. 전공 만족도의 하위영역은 교과내용 만족과 외재적 인식 만족으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실험집단인 재학생은 평균 3.98, 비교집단인 졸업생의 경우 3.92로 나타났다. 외재적 인식 만족 영역에서 재학생 평균 4.02, 졸업생 평균 4.12로 두 집단 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위영역 중 교과내용 만족에 해당하는 유의확률의 경우 0.653으로  $p < 0.05$ 보다 크므로 유의미 하지 않고, 외재적 인식 만족의 유의확률 또한 0.428로 두 집단 모두 전공 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느끼는 전공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IV-17> 두 집단의 전공 만족도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전공 만족도 하위영역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교과내용 만족	재학생	61	3.98	0.46	103	-0.45	0.653
	졸업생	44	3.92	0.36			
외재적 인식 만족	재학생	61	4.02	0.48	103	-0.79	0.428
	졸업생	44	4.12	0.32			

\*  $p < 0.05$

#### 4. 음악교육 대학원생들<sup>78)</sup>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분석 결과

##### 가.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 분석 결과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을 전체집단으로 보고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t-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 <표IV-18>이다.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3.98이다.

<표IV-18>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결과

	구분	사례수(명)	평균
진로결정수준	전체	105	3.98

\*p < 0.05

다음 <표IV-19>는 105명의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 하위 영역별 결과이다. 진로결정성의 평균은 3.82, 진로미결정성의 평균은 4.00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유의확률은 0.120으로 P-value가 0.05보다 크므로 진로결정성과 진로미결정성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78) 이하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은 재학생, 졸업생을 모두 합친 105명에 대한 분석 값을 의미한다.

<표IV-19>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성	105	3.82	0.89	103	-1.56	0.120
	진로미결정성	105	4.00	0.56			

\* p < 0.05

#### 나.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교직 선택 동기 분석 결과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교직 선택 동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IV-20>과 같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교직 선택 동기를 내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 외재적 동기로 하위영역을 나눈 후 F-검증을 하였다. 내재적 동기에 대한 평균은 4.20, 이타적 동기 4.10, 외재적 동기의 평균은 3.53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000으로 P-value가 0.05보다 작으므로 내재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 외재적 동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치에 따라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교직 선택 동기에는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이타적 동기가 더 높게 작용했음을 발견했다. 이는 앞선 재학생과 졸업생의 결과와도 비슷하다.

<표IV-20>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교직 선택 동기에 대한 F-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F값	유의확률
교직 선택 동기	내재적 동기	105	4.20	0.39	26.98	0.000
	이타적 동기	105	4.10	0.53		
	외재적 동기	105	3.53	0.58		

\* p < 0.05

다.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전공 만족도 분석 결과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전공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IV-21>이다.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전공 만족도 평균은 4.01로 나타났다.

<표IV-21>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전공 만족도에 대한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전공 만족도	전체	105	4.01

\* p < 0.05

전공 만족도의 하위영역은 교과내용 만족과 외재적 인식 만족 두 영역으로 나누었고 그 결과는 다음 <표IV-22>이다.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96, 외재적 인식 만족에 대한 평균은 4.06으로 나타났다.

두 하위영역의 유의확률은 0.217로 P-value가 0.05보다 크므로 두 영역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표IV-22>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전공 만족도 하위영역별 t-검증 분석

	구분	사례수(명)	평균	분산	t값	유의확률
전공 만족도	교과내용 만족	105	3.96	0.42	-1.24	0.217
	외재적 인식 만족	105	4.06	0.41		

\* p < 0.05

라.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음의 <표IV-23>은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진로결정수준과 전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0.7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음으로 내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0.70, 이타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0.6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진로결정수준과 외재적 동기와의 상관관계는 -0.12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이타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와의 상관관계가 -0.05, 외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가 0.12 순으로 낮았다.

<표IV-23>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

	진로결정수준	내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	외재적 동기	전공 만족도
진로결정수준	1.00				
내재적 동기	0.44	1.00			
이타적 동기	0.37	0.60	1.00		
외재적 동기	-0.12	0.23	-0.05	1.00	
전공 만족도	0.71	0.70	0.63	0.12	1.00

위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재학생과 졸업생 간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의 차이는 진로결정수준을 제외하고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진로와 교직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전공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진학하였기에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마찬가지로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뜻함을 본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교직 선택 동기를 알아보고 이 두 변인이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재학생과 졸업생 10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유효한 설문지를 통해 음악교육 전공생들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를 기술 통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첫째,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3.85로 진로결정성과 진로미결정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은 4.17로 마찬가지로 진로결정성과 진로미결정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교하였을 때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합한 전체 집단의 진로결정수준은 3.98의 수치를 보였다.

둘째, 교직 선택 동기에 있어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내재적 동기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 다음으로 이타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고, 외재적 동기가 가장 낮았다. 재학생의 내재적 동기 평균은 4.12, 이타적 동기 평균 4.01, 외재적 동기 평균 3.63이 나왔으며 졸업생의 경우 내재적 동기 평균 4.30, 이타적 동기 평균 4.22, 외재적 동기 평균 3.40으로 나타났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합친 전체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경우 내재적 동기 4.20, 이타적 동기 4.10, 외재적 동기 3.53으로 앞선 나온 결과와 같았다. 이 같은 결과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교육대학원에 진학함에 있어

내재적 동기를 가장 많이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공 만족도에 있어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높은 평균을 보였다.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4.00을 나타냈으며 졸업생의 경우 4.02의 결과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공 만족도의 하위영역에서 재학생의 경우 교과내용 만족이 3.98, 외재적 인식 만족 4.02로 두 영역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졸업생의 전공 역시 교과내용 만족이 3.92, 외재적 인식 만족이 4.12, 로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음악교육 대학원생 전체의 전공 만족도는 4.01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하위영역 별 결과에서는 교과내용 만족이 3.96, 외재적 인식 만족이 3.96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의 경우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과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가 0.76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 간 관계가 -0.01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졸업생의 진로결정수준,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 상관관계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전공 만족도가 0.8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진로결정수준과 외재적 동기와의 관계로 -0.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음악교육 대학원생 전체에서도 앞선 내용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과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가 0.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과 외재적 동기의 관계가 -0.12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다는 앞선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상관관계와 낮은 상관관계의 결과를 통해 교직 선택 동기 또한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이 교육대학원 졸업 후에도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를 비롯하여 전공 만족도에 있어서 재학

했던 때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음악 교사들이 교직 선택 동기에 있어 내재적, 이타적 동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의 진로유지와 내재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혜진(2015). “예비특수교사의 교직선택 동기와 교직원 및 교사효능감 특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6(13). 63-78.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구영애, 박수진, 안성식(2020). “대학생의 전공 선택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 45-70.
- 김가미, 소용준, 박준성(2018).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63-83.
- 김계현,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學科), 학부(學部)만족(滿足)의 요인(要因)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 김병숙, 강일규, 진미석, 장원섭, 김해동, 권진희, 정윤경, 김현식, 이양구(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보람, 김봉환(2015).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6. 1-22.
- 김봉환 외 12인(2013).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9(1). 311-333.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공저(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은주(2018). **교직과 교사**. 서울: 시그마플렉스.
- 김이경, 한신일(2006). “중등 예비교사들의 교직 희망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수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3(2). 51-73.
-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공저(2011).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동문사.
- 박선영, 김지영, 오효정, 오은경 공저(2014). **진로상담과 직업**. 파주: 정민사.
- 어윤경(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 만족도 및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분석: 대학 전공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2012).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직무수행 및 교사만족에 주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39-260.
- 이지연, 윤희한, 김나라(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채연(2004).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과정 편성 현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19(1). 127-162.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장대운 외(1986). “전공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4. 1109-1154.
- 정은교, 안도희(2019). “교직이수 학생의 교직 선택 동기가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교직선택만족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7(4). 301-326.
- D.C. Lortie(1993). **School teacher A Sociological Study**. 진동섭, 정수현, 박상완, 김병찬 역·저(2017). **미국과 한국의 교직사회**. 파주: 양서원.

## 석사학위논문

- 김주경(2012).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전공 만족도와 직장선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하영(2018).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진학동기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원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이예진(2019). 예비음악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이혜민(2017).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유수(2010). 초등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와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미정(2018). 직업의 내·외적가치와 대학생의 전공만족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주연(2006). 초등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직 헌신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예슬(2019).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와 교사신념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황현정(2015).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인터넷 참고

- 잡코리아(2021). ‘올해 대졸예정자 10명중 7명 아직 미취업’ 기사.  
[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599  
&schCtgr=0&Page=3/](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599&schCtgr=0&Page=3/) (2021.2월 접속)
- 표준국어대사전(1999). 교육대학원 정의. <https://www.korean.go.kr> (2021  
년 2월 접속)
-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1.1월 접속)
-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교육통계센터. 대학 졸업자 취업률.  
<http://swiss.kedi.re.kr/> (2021.2월 접속)
-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서비스 학과계열별 입학자 수 통계.  
<https://kess.kedi.re.kr/> (2021.2월 접속)

## ABSTRACT

### The influence of the level of career determination and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on major satisfaction of graduate students in Music Education

Yeo-Jeen, Ju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determination level and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on major satisfaction of graduate students in music education. For the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on 105 graduate students of music education who attended or graduated from 10 graduate schools in Seoul. The survey consisted of 60 questions, including general matters, career decisions,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satisfaction with majors, and free technology, and was based on effective data collec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evel of career determination for music education graduate students is 3.85 for students and 4.17 for graduates, and the level of career determination for all music education graduate students

is 3.98.

Secondly, graduate students in music education had the highest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positions, while both students and graduates had the highest intrinsic motivation, followed by altruistic motivation and external motivation. music education graduate students for students, the intrinsic motivation was 4.12, altruistic motivation 4.01, and external motivation 3.63, the lowest. music education graduate students for Graduates had intrinsic motivation of 4.30 and altruistic motivation of 4.22, and the result was 3.40, which had the lowest external motivation in the same order as the student in school. Figures for all graduate students in music education also showed similar results to those of previous students and graduates. According to the survey, music education graduate students have the strongest intrinsic motivation to enter graduate school.

Third, both students and graduates showed a high average in major satisfaction. 4.00 for students and 4.02 for gradu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between students and graduates were found, nor were there any differences in content of the subject and external recognition satisfaction.

Fourth,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three sides, the high correlation is with the satisfaction of the major. In the case of student in school,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major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was the lowest. Graduates also showed the highest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professional satisfaction, and the lowest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 and extrinsic motivation. This proves that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and the motivation to choose a teacher affect major satisfac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and satisfaction of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tudent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tudents' career, intrinsic motivation, and altruistic motivation.

## 부록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교육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대학원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교직 선택 동기 분석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3문항, 진로결정수준 18문항, 교직 선택 동기 21문항, 전공 만족도 15문항, 희망진로에 대한 자유기술 3문항 순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을 읽고, 평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를 기재해주시고 각 질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작성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소요시간은 대략 10-15분 정도입니다.

응답하시는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정여진 올림



II. 다음은 귀하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장래 진로/직업(들)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_____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1	2	3	4	5
4	나는 비슷하게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결국 직업을 선택해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서도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_____가 되고 싶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 나 자신과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1	2	3	4	5
7	지금 당장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경험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진로 선택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1	2	3	4	5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희망진로에 대해 확고했지만 최근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1	2	3	4	5
10	나의 진로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	2	3	4	5
11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를 받아서라도 빨리 결정하고 싶다.	1	2	3	4	5
12	나의 전공 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은 할 수 없다.	1	2	3	4	5
14	나는 나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15	나는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1	2	3	4	5
16	나는 진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확실하지 않다. 다시 말해 내가 ___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1	2	3	4	5
17	진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가지 직업들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1	2	3	4	5
18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Ⅲ. 다음은 귀하의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을 선택한 교직 선택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차고 좋다고 생각되어 선택하였다.	1	2	3	4	5
2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선택하였다.	1	2	3	4	5
3	중고등 연령대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4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5	학생들과 교감하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자아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6	내 성격/적성이 교직에 맞다고 판단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7	학생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8	방학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1	2	3	4	5
9	음악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회에 헌신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10	교사의 안정적인 수입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11	정년퇴직 후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12	교원에 대한 복지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때문에 선택하였다.	1	2	3	4	5
13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14	도전적이고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15	교육대학원 진학이 취직에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16	나의 의사보다는 주위(부모, 선생님, 친구 등)의 권유를 받아 들어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17	안정된 신분 보장과 장기간 근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18	교직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도 및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19	다른 방향으로 진학. 취직하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교직을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20	진학 당시의 경제력 상황, 주변 환경, 성적 등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기에 선택하게 되었다.	1	2	3	4	5
21	위 1-20번 항목 중 선생님이 교직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동기는 몇 번 문항입니까?	(        )번 문항				

IV. 다음은 전공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의 경우 교육대학원 재학 당시 느꼈던 전공 만족 정도를 생각하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음악교육학과의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1	2	3	4	5
2	음악교육학과의 교육내용은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1	2	3	4	5
3	음악교육학과의 교과목 구성내용은 다양하다.	1	2	3	4	5
4	음악교육학 전공도서는 배울 가치가 있는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2	3	4	5
5	전공학과 교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1	2	3	4	5
6	전공공부(음악교육학)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1	2	3	4	5
7	음악교육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나와 잘 맞는다.	1	2	3	4	5
8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1	2	3	4	5
9	내가 전공하는 음악교육학과는 인기 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음악교육학과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전공학과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12	부모님은 내가 전공하는 음악교육학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13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음악교육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1	2	3	4	5
14	나는 내가 전공중인 음악교육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1	2	3	4	5
15	후에 진로선택에 있어서 지금의 전공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 V. 자유기술

1. 교육대학원 졸업 후(재학생의 경우), 또는 졸업한 현재(졸업생의 경우) 희망진로는 무엇입니까?

2. 교직과 관련된 직종이 아닌 경우 희망진로는 무엇입니까?

- 2-1. 다른 직종을 진로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